

목차

1	2013 언어이해	대중문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4~9] 아도르노와 유사)
2	2018 언어이해	유류분 제도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10~13] 유류분 제도와 유사)
3	2022 언어이해	클러스터링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14~17] 인터넷 검색 엔진 작동 지문과 흐름 유사)

조남희 국어

아도르노는 문화산업론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론을 통해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산업론을 통해서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그(아도르노)는 지배 관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허위의식을 이데올로기로 보고, 대중문화를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대중 조작 수단으로, 대중을 이에 기만당하는 문화적 바보로 평가하였다.

아도르노가 이데올로기, 대중문화, 대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데올로기는 지배 관계를 은폐하고, 대중문화를 통해 이를 조작하고 대중은 이에 기만당하는 존재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후 내용 이해를 위해 아도르노가 이데올로기, 대중문화, 대중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그(아도르노)는 대중문화 산물의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도식화되어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도르노는 대중문화 산물의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되고 도식화되어 예술인 척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도르노는 대중문화를 예술로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아도르노)의 이론은 구체적 비평 방법론의 결여와 대중문화에 대한 극단적 부정이라는 한계를 보여 주었고,

앞서 제시한 아도르노는 구체적 비평 방법론의 결여, 대중문화에 대한 극단적 부정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한계가 같이 제시된다면 한계점 역시 필히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의 연구는 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화 방식을 규명하거나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두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전자는 알튀세를 수용한 스크린 학파(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화 방식 규명)이며 후자는 수용자로 초점을 전환한 피스크(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아도르노에게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문화 텍스트의 의미화 방식을 규명하는 스크린 학파와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수용자에 초점을 맞춘 피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지문에서 대놓고 이 둘을 구분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각각에 드러나는 주장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며 구분한다는 인식을 갖추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스크린 학파는 주체가 이데올로기 효과로 구성된다는 알튀세의 관점에서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비판하고 어떻게 특정 이데올로기가 대중문화 텍스트를 통해 주체 구성에 관여하는지를 분석했다.

초기 스크린 학파는 이데올로기를 허위로 보는 개념을 비판하고 주체가 이데올로기의 효과로 구성되며, 특정 이데올로기가 대중문화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주체 구성에 관여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즉 초기 스크린 학파는 이데올로기가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주체 구성에 관여하는지를 핵심으로 취급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초기 스크린 학파)은 이데올로기를 개인들이 자신의 물질적 상황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개념들로 규정하고, 그것(이데올로기)이 개인을 자율적 행위자로 오인하게 하여 지배적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주체로 만든다고 했다.

초기 스크린 학파가 이데올로기와 주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시되었습

니다. 아도르노의 이데올로기와 대중을 바라보는 시선의 개념을 파악한 것과 같이 이 역시 초기 스크린 학파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자율적 행위자로 오인시켜 스스로 지배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관계를 이해한 뒤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특히 그들(초기 스크린 학파)은 텍스트의 특정 형식이나 장치를 통해 대중문화 텍스트의 관점을 자명한 진리와 동일시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분석했다.

앞서 초기 스크린 학파는 개인들이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신들이 자율적이라 오인하고 지배적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들은 개인이 이데올로기로 인해 대중문화 텍스트의 관점을 진리로 인식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초기 스크린 학파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개인의 착각(주체적이라는)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해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석(이데올로기로 인한 개인의 착각)은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가 수용되는 기제의 해명에 집중되어, 텍스트가 규정하는 의미에 반하는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초기 스크린 학파의 개념은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가 수용되는 기제 해명에 집중 = 이데올로기로 인한 개인의 착각에 집중되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독해를 진행했을 때 초기 스크린 학파는 이데올로기로 인한 개인의 착각을 핵심으로 보며, 이로 인해 다양한 해석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해된 상태로 독해가 진행됐어야 합니다.

이 맥락(다양한 해석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피스크의 수용자 중심적 대중문화 연구가 등장한다.

다양한 해석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로 피스크의 수용자 중심적 대중문화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스크의 연구는 다양한 해석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이해하고 앞서 제시된 아도르노, 스크린 학파와 같이 핵심과 한계를 파악한다는 인식으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피스크)는 수용자의 의미 생산을 강조하여 정치 미학에서 대중 미학으로, 요컨대 대중문화 산물이 "정치 투쟁을 발전 또는 지연시켰는가?"에서 "왜 인기가 있는가?"로 초점을 전환했다.

피스크는 수용자의 의미 생산을 강조하고 정치 미학에서 대중 미학으로 전환하며 왜 인기가 있는지를 핵심으로 분담합니다. 즉 인기가 있는 이유에서 수용자 중심의 의미를 찾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피스크)는 대중을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주체 위치에서 유동하는 행위자로 본다.

피스크는 앞서 제시된 것들과 달리 대중을 다양한 주체 위치에서 유동하는 행위자로 봅니다. 즉 피스크는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필히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제작된 대중문화 텍스트는 그 자체로 대중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자원일 뿐이며, 그 자원의 소비 과정에서 대중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저항적·도피적 쾌락을 생산할 때 비로소 대중문화가 완성된다.

상업적인 대중문화는 그 자체는 대중문화를 이루는 자원일 뿐이며 소비 과정에서 대중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때 대중문화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스크는 앞서 이해한 것과 같이 대중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대중문화를 이루는 자원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때 대중문화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정말 사소한 팁

이건 정말 사소한 습관이지만, leet나 수능같이 잘 완성된 글에서는 조사, 접속사, 강조 등 어떤 부분도 허투루 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상업적으로 제작된 대중문화 텍스트는 그 자체로 대중문화가 아닌 그것을 이루는 자원일 뿐이며'라고 보조사를 통해 대놓고 강조해줬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피스크는 지배적, 교섭적, 대항적 해석의 구분을 통해 대안적 의미 해석 가능성을 시사했던 **홀**을 비판하면서, **그(홀)조차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선호된 해석을 인정했다고 지적한다.**

피스크는 홀이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해석, 즉 능동적인 해석이 아닌 수동적인 해석을 진행함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홀은 대중문화에 대해 수동적인 해석을 진행했음을 이해한 뒤 독해를 이어갔어야 합니다.

tip - 다양한 인물 / 개념어의 등장?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보량이 적더라도 다양한 인물과 개념어가 나오면 그 나름대로 독해 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당 지문도 아도르노, 스크린 학파, 피스크, 홀 등 다양한 인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 지문**이라면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구조화해서 독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필연적으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때 돌아왔을 때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 독해 시 인물 / 개념어에 잘 보이게 **인물이름** 표시 하든, △ ○ ☆로 표시하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표시하시면서 독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해 시 밑줄을 남발하거나 기호를 남발하여 독해보다 기호가 주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기호의 단순 남발이 아닌 본인이 틀에 맞는 기호 사용은 문제 풀이에 효율성을 올려 줍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글을 100% 완벽하게 독해해서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글을 읽는 것이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도 모두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대비책을 잡는 것도 '시험'을 보기 위한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 대신 **그(피스크)**는 텍스트가 규정한 의미를 벗어나는 대중들의 게릴라 전술을 강조했던 드 세르토에 의거하여, **대중문화는 제공된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힘에 복종하지 않는 약자의 창조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피스크는 게릴라 전술을 강조한 드 세르토에 의거하여 대중문화는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 속 힘에 복종하지 않는 약자의 창조성, 즉 대중의 능동적인 해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 내용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하며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스크는 대중문화를 판별하는 대중의 행위를 **아도르노** 식의 미학적 판별과 구별한다.

피스크는 대중문화를 판별할 때 아도르노의 미학적 판별과 구별되는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대놓고 둘이 구별된다고 제시했으니 우리도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며 독해한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텍스트 자체의 특질에 집중하는 미학적 판별(아도르노)과 달리, **대중적 판별(피스크)**은 일상에서의 적절성과 기호학적 생산성, 소비 양식의 유연성을 중시한다.

앞서 피스크는 상업적인 대중문화는 그 자체는 대중문화를 이루는 자원일 뿐이며 소비 과정에서 대중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산

할 때 대중문화가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해한 상태라면 피스크가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미학적 판별이 아닌 그를 해석하는 유연성(능동적 해석)을 중시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텍스트는 대중들 각자의 상황에 적절하게 기능하는, **다양한 의미 생산 가능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텍스트의 구조에서 텍스트를 읽어 내는 실천 행위로, "무엇을 읽고 있는가?"에서 "어떻게 읽고 있는가?"로 문제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문화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 생산이 중요해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의미 생산 = 대중의 능동적 해석이라는 핵심을 파악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다른 말 같은 뜻

독해 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뜻으로 인지하지 않고 파편적으로 독해할 시 파편적인 독해, 흔히 말하는 날림 독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같은 범주라는 것을 인식해야 이어지는 지문 독해 시 느끼는 부담이 줄고, 문제풀이 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피스크의 핵심 = 능동적 해석이 다른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임을 파악하며 결국은 같은 범주, 같은 뜻임을 인식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체감 정보량이 줄고 내용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같은 범주로 잡아가며 독해할 때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피스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퀴즈 쇼의 여성 수용자를 예로 든다.

피스크의 능동적 해석(유연한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가 제시됩니다. 예시를 이해하고 그것을 피스크의 핵심과 연결 짓는 독해를 진행해봅시다.

상품 가격을 맞추는 **퀴즈 쇼인 <The Price Is Right>**에서는 남성의 돈벌이에 비해 하찮게 여겨졌던 여성의 소비 기술이 갈채를 받고 공적 재미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보는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존 체제의 경제적, 성적 억압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피스크는 여성 방청객에게서 **바호친의 카니발적 요소**를 읽어 낸다. 방청객의 열광은 일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욕망을 가상적으로 충족하게 함으로써 기존 질서의 유지에 일조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다움에서 벗어나고 사회 규범을 폭로하는 파괴성을 지닌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예시는 아닙니다. 퀴즈쇼의 내용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방청객의 열광(방청객의 의미 해석) 기존 질서의 유지 + 사회 규범 폭로하는 파괴성과 같이 유연한 해석(능동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퀴즈 쇼는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담론을 중심 코드로 사용하지만, 대중의 소비 과정에서 생겨난 저항적·회피적 의미와 쾌락은 그것을 폭로하고 와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퀴즈 쇼는 가부장 담론이 중심이지만, 소비 과정에서 생성된 의미는 가부장 담론을 폭로하고 와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 의미는 가부장 담론이지만, 다양한 의미가 생성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셨으면 충분합니다.

- 코멘트

여기서 역시 '가부장적 담론이 중심이지만'과 같이 보조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스크는 대중문화가 일상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토대로 해서 이후의 급진적 정치 변혁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대중문화를 통해 일상의 진보적 변화도 가능하지만, 급진적 정치 변혁도 가능하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스크는 대중적 쾌락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사회적 생산 체계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스크 역시 완벽하지는 않고 대중의 쾌락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며 사회적 생산 체계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대중의 쾌락을 높이 평가한 것이 어떤 문제이며, 사회적 생산 체계를 간과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독해를 마무리합니다.

캘러에 따르면, 수용자 중심주의는 일면적인 텍스트 결정주의를 극복했지만 대중적 쾌락과 대중문화를 찬양하는 문화적 대중주의로 전락했다.

캘러에 따르면 대중의 쾌락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수용자 중심주의는 대중적 쾌락과 대중문화를 찬양하는 문화적 대중주의로 전락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나치게 쾌락을 높이 평가한 것은 대중 쾌락을 찬양하는 문화적 대중주의로 전락했다고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충분합니다.

특히 수용자 자체도 문화 생산 체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호와 기대 또한 대중문화의 효과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 체계를 간과해 수용자 자체도 생산 체계의 산물로 그들의 선호와 기대 또한 대중문화의 효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됩니다. 즉 그들의 능동적 해석이 능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임을 인식한 상태로 독해를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13 - [33~35] 문제 해설

33.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①

아도르노는 대중문화 산물의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도식화되어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 산물에 대한 질적 가치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가 예술로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간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② :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을 수용한 초기 스크린 학파는 텍스트의 특정 형식이나 장치를 통해 대중문화 텍스트의 관점을 자명한 진리와 동일시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즉 일면적 규정을 강조하는 시각을 지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 피스크는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맞지만, 상업적으로 제작된 대중문화 텍스트는 그 자체로 대중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자원일 뿐이며, 그 자원의 소비 과정에서 대중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저항적·도피적 쾌락을 생산할 때 비로소 대중문화가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중문화의 긍정적 의미를 대중 스스로가 '문화 자원'을 만드는 것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④ : 수용자 중심적 관점인 피스크는 지배적, 교섭적, 대항적 해석의 구분을 통해 대안적 의미 해석 가능성을 시사했던 홀을 비판하면서, 그조차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는 선호된 해석을 인정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홀은 수용자 중심적 연구의 관점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 정치 미학에서 대중 미학으로의 발전은 "왜 인기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이는 텍스트가 규정한 의미를 벗어나는 대중들의 게릴라 전술을 강조한 시각과 유사한 것이지 극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코멘트

지문에 등장한 다양한 인물들의 핵심(주장)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34. 퀴즈 쇼에 대한 피스크의 논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①

퀴즈 쇼는 기존 질서 유지에 일조하지만, 사회 규범을 폭로하는 파괴성을 지닙니다. 즉 퀴즈 쇼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전복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② : 퀴즈쇼를 보는 여성들은 자신의 일상 지식과 기술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존 체제의 경제적, 성적 억압에 주목하게 됩니다. 즉 여성과 관련된 집안일의 하찮음을 깨닫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 퀴즈쇼가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중심적 의미는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담론을 사용합니다.

~만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할 문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④ : 퀴즈쇼가 정치 변혁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맞지만 일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욕망을 가상적으로 충족하게 함으로써 기존 질서의 유지에 일조한다는 것을 통해 일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욕망을 가상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정치 변혁이 아닌 기존 질서 유지에 일조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⑤ : 피스크는 여성 방청객에서 카니발적 요소를 읽어 냅니다. 그런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자율적 주체로 여기지만 지배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피스크가 아닌 이데올로기를 개인들이 자신의 물질적 상황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개념틀로 규정하고, 그것이 개인을 자율적 행위자로 오인하게 하여 지배적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주체로 만든다고 보는 초기 스크린 학파의 주장입니다.

- 코멘트

정답을 고르기는 쉬웠지만, 나머지 선지들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지문에 제시된 각각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35. 위 글에 따를 때, <보기>에 대한 각 입장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분석

같은 영화에서 마돈나는 쾌락의 대상, 강한 여성, 성차별적 이미지로 인식됨.

답 ②

초기 스크린 학파는 이데올로기를 개인들이 자신의 물질적 상황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개념들로 규정하고, 그것이 개인을 자율적 행위자로 오인하게 하여 지배적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주체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층적 기호학적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아도르노는 대중문화를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대중 조작 수단으로, 대중을 이에 기만당하는 문화적 바보로 평가하였습니다. 즉 마돈나의 뮤직 비디오에서 수용자가 얻는 쾌락이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기만적 즐거움, 대중을 문화적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피스크는 대중문화 텍스트는 대중들 각자의 상황에 적절하게 기능하는, 다양한 의미 생산 가능성이 중시합니다. 이를 통해 모순적 이미지 속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주목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피스크는 대중문화는 제공된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힘에 복종하지 않는 약자의 창조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마돈나의 뮤직 비디오가 갖는 의의를 수용자가 대중문화 자원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찾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 켈러는 대중들의 선호와 기대 또한 대중문화의 효과를 통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켈러가 마돈나의 뮤직 비디오에서 수용자들이 느끼는 쾌락이 대중문화에 대한 경험과 문화 산업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코멘트

<보기>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니다. 이 문제 역시 첫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국 각각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가 핵심인 문제였습니다.

총평

다양한 독해 포인트가 있지만, 이 지문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핵심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태도입니다.

해당 지문은 거시적으로는 아도르노, 스크린 학파, 피스크 각각이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한계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때 독해를 진행하며 핵심을 이해하고(예를 들어 피스크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핵심이 반복되며 제시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다른 표현으로 제시되어도 같은 범주임을 인식하며 독해를 진행하여(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음) 각각의 관점과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범주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에서 개인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생전의 제한 없는 재산 처분은 유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지문의 시작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제한 없는 자유는 유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네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에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몫이 상속인에게 유보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유류분(遺留分) 제도이다.

첫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납득된 정보를 이어서 글의 핵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유류분 제도'가 글의 핵심이고 이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의 관점으로 글이 전개될 것을 생각할 수 있네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재산 처분의 자유, 상속인 보호의 관점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초점을 맞춰 독해를 시작해봅시다.

프랑스는 대혁명을 거치면서도 예전처럼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관념이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전통을 불러오는 이런 자유는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이 점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었네요. 제한 없는 재산 처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혁명기의 입법자는 유언의 자유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입법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처분이 가능한 자유분과 상속인들을 위해 유보해야 하는 유류분으로 구분하여 자유분을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혁명기에는 유류분 제도에서 상속인 보호의 관점을 더 부각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핵심에 맞는 범주화는 독해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핵심을 파악의 중요성을 반증해주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들도 이렇게 범주화를 하며 독해를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임의처분 가능 = 자유분 / 상속인을 위해 유보 = 유류분 이렇게 개념어에 대한 정리까지하고 독해를 이어가시는 것이 베스트겠죠? 지문에서 자유분, 유류분 말고 금전적인 개념으로 제시된 개념어가 없어 여기서 정리를 안 하고 가셨어도 독해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단순히 이 독해 태도만을 떠나서 항상 그렇게 읽어 버릇해야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04년의 나폴레옹 민법전에서는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에 한해 유류분권을 인정했다.

나폴레옹 민법전에서 유류분권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조건을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필히 갖춰야 할 독해 태도입니다. 나폴레옹 민법전에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유류분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독해를 이어갑시다.

tip - 조건은 답을 결정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지문에서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지문에 제시가 되었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선지에 나오면 그건 맞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그런 선지에 낚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건문은 필히 문제에 나오니까요. 해당 지문과 문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보량이 과하지 않고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수월했기에 이렇게 독해 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진행했어도 무리를 느끼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량이 많은 고난도 지문에서 이런

게 '조건'이 제시됐을 때 정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해를 계속 진행한다면 지문에서 갑자기 상충된다 느끼는 부분이 나오고, 문제 풀이에서 낙시 선지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조건도 전체, 예외를 만드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선 딱 하나 '조건'이 나오면 생각을 정리한 뒤 독해를 진행한다는 독해 습관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자격과 수에 따라 달라지게 했다.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 또는 유언에 의한 무상처분은 자녀를 한 명 남긴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을, 두 명을 남기는 경우에는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유류분이 상속인의 자격과 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조건과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 유언에 의한 무상처분은 자녀가 한 명이면 절반, 두 명을 남기면 1/3을 초과할 수 없음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외우고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이 부분(나폴레옹 시기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을 물어봤을 때 구체적 수치를 바로 찾을 수 있게 최소한 본인 나름에 체크는 필히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권자에서 배제되지만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도록 하여, 상속 포기가 있어도 자유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어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계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자 배제 but 유류분 계산 시 자녀수에는 포함 = 자유분 변동x 이 정도는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문장 독해에서 ~만, ~보다, ~은 아닐지라도와 같이 고전적이지만 이런 조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흔히 말하는 미시독해의 일부), 이것이 문제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지문, 선지에서 이렇게 조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직계비속을 위한 유류분 제도는 젊은 상속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

나폴레옹 민법전에서 유류분권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특히 직계비속 즉 젊은 상속인의 생활을 위한 제도였다는 것을 통해 나폴레옹 민법전 시기는 피상속인의 '의무'를 중시했었다는 범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이 정도의 범주화는 응당 이뤄지고 독해를 이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독해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tip - 정말 사소한 팁

이건 정말 사소한 습관이지만, leet나 수능같이 잘 완성된 글에서는 조사, 접속사, 강조 등 어떤 부분도 허투루 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특히'라고 대놓고 지문에서 강조를 해줬다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그러나, 하지만, 반면 같이 역접의 느낌이 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 특히, 가장 등과 같이 강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한 민감함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문에서 이런 강조 표현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갖춰버릇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006년에는 큰 변경이 있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이 고령화로 인해 장기에 걸쳐 진행되므로, 유류분 부족분을 상속 재산 자체로 반환하는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영향 받는 제삼자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 상속 개시 시기가 늦어졌어도 상속인들이 생활 기반을 갖춘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또 이혼이나 재혼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1804 나폴레옹 시기 이후 2006년에 다양한 이유(피상속인 생전 처분 고령화, 상속인 생활 기반 갖춘 경우가 일반화, 가족 재편 경우 증가)로 유류분 제도에 큰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해 주네요.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 나폴레옹 시기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고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이어갑시다.

이를 배경으로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허용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폐지했다.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도 증대시켰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상속 포기가 있으면 자유분이 증가하도록 했다.

이 시기는 유류분의 사전 포기 허용, 직계존속 유류분 폐지, 상속 포기 자녀는 유류분 계산 시 자녀 수에서 제외, 그리고 피상속인의 자유를 더 강조해주네요. 직계존속 유류분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자유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며 상속을 포기한 자녀여도 유류분 계산 시 자녀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나폴레옹 시기와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재산 처분 자유를 이전보다 조금 더 인정해준다는 범주화가 이루어진 뒤 독해를 이어가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제삼자를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만큼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제삼자 고려 즉 나폴레옹 시기는 직계비속 젊은 상속인이 중점이었지만 여기서는 제삼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기가 재산 처분 자유를 더 인정해준다는 범주화가 더욱 명확하게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신설되었다.

글의 초점이 이제 한국의 유류분 제도로 전환되었네요. 우리 유류분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산 처분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상속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범주 파악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보십시오.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 결격 사유도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를 유류분권자의 범주에 포함하되 최우선 순위인 상속권자를 유류분권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는 동일 순위이지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한다.

용어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법은 조건에 맞다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를 모두 유류분권자의 범주에 포함하지만, 최우선 순위인 상속권자를 유류분권자로 인정하네요. 즉 1순위 상속권자가 유류분권자가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유류분권자의 범주 ≠ 유류분권자라는 용어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대충 '아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자네~'라는 날림 독해를 했다면 문제 풀 때 답이 안 보이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ip - 언어에 대한 민감함

과거 수능에서 %와 %p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와 %p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자의 '범주'와 '유류분권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만, 지문을 대충 읽거나 급하게 읽을 때 우리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평소에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견지한 독해 태도가 갖춰졌을 때 시험장에서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의식하고 지문과 선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면 계속 쭉, 자신이 조금 부족했다면 앞으로라도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권자가 된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 비율로 정한다. 법정 상속분은 직계비속들 사이에서는 균분이고,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반이다.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확정하여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 한도에서 유증(遺贈) 또는 증여 받은 자에게 부족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 유류분을 나누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유류분권자가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 비율로 정하고, 이때 법정 상속분이 직계비속들이 법정 상속분의 반인 비율에서 균분,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이에 미달하면 유증, 또는 증여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내용 정리만 했죠? 네 여기는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 계산 내용을 다 외우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만약 문제에서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여기로 돌아와서 확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tip - 돌아올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실전에서 우리가 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실전이 아니라도 단순 비례관계도 아닌 이런 계산식 모두를 '외워서' 독해를 진행한다는 것은 몇몇 타고난 천재들 외에는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계산에 관련된 내용은 항상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기에 절대 간과하며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만, 이를 다 외운다는 것은 '평범한 인간'에게는 노력 밖의 영역일 수도 있기에, 문제에서 물어볼 때 다시 돌아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알아보기 편하게 간단한 표시 정도를 해놓고 독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우리의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유류분 제도에 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마무리해보십시오.

도입 당시에는 호주 상속인만의 재산 상속 풍조가 만연한 탓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법 적용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유류분권을 보장하는 점이 중시되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 처분의 자유'보다는 '상속인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의 유류분 제도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니 '재산 처분의 자유'가 강화되어야 되겠죠? 맞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이 정도는 예측도 사후적인 해설도 아닌, 범주화가 된 상태이고, '상속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범주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했으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장자 단독 상속 현상이 드물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 사에 따른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제한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네 우리 민법에서 유류분에 대한 제한 범위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즉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인식하며 독해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33.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④

우리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를 유류분권자의 범주로 보지만, 최우선 순위인 상속권자를 유류권자로 보고 그 우선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그리고 이와 동일 순위인 배우자 그리고 3순위 형제 자매입니다. 즉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유류분권을 주장하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어에 대한 민감함을 견지해서 유류분권자의 범주와 유류분권을 구분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상당히 까다롭다고 느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지문에서 혁명기의 입법자는 유언의 자유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자유분을 최소화했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일치고, 이 시기가 자유보다 상속인 보호의 범주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무리 없는 선지입니다.

② : 지문에서 나폴레옹 민법전은 피상속인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직계비속을 위한 유류분 제도는 젊은 상속인의 생활을 위한 것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③ : 지문에서 2006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로 고령화 이혼 재혼 가정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증대시켰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⑤ : 지문에서 우리의 유류분 제도 개정에 대해 얘기할 때 도입 당시에는 호주 상속인만의 재산 상속 풍조가 만연한 탓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34. 밑줄에 제시된 각 입장에 따라 우리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을 논의할 때, 추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문에서 우리의 유류분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개정 방향은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재산 처분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추론이 적합한 추론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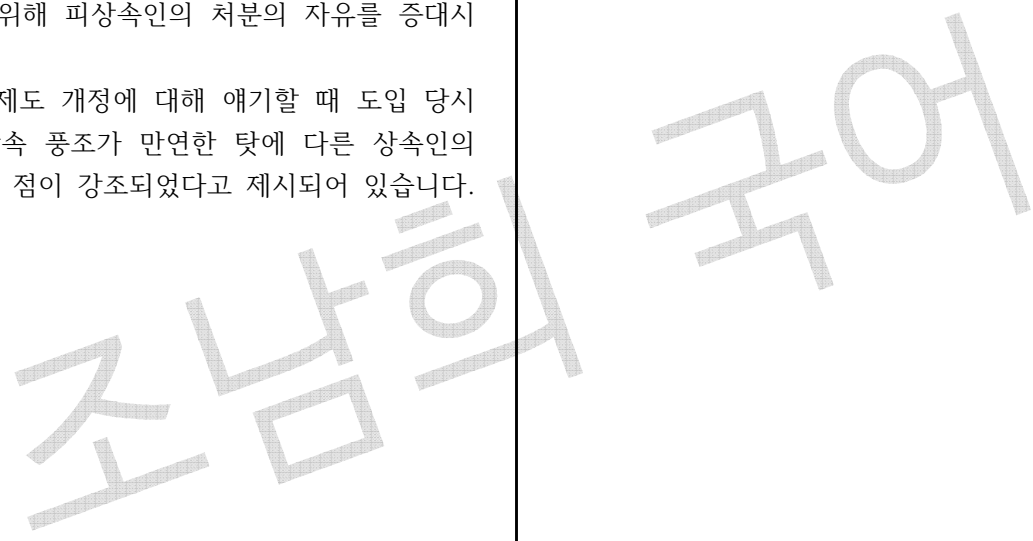
답 ④

2006년 프랑스 민법전은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증대시켰고, 우리의 유류분 제도의 개정 방향은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이 제시되었기에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으로 증여 받은 재산자의 권익이 더 강화되는, 즉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추론이 적절합니다.

범주 파악(재산 처분의 자유? 상속인 보호?)이 잘 이루어진 독해를 했을 경우 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이지만, 범주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다면 꽤나 난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②③⑤ : 유류분권자의 권익이 더 강화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범주와는 대척되는 부분입니다. 범주화만 잘 이루어졌다면 다른 판단 없이 이 판단만으로 충분한 해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평가할 때,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답 ①

ㄱ.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B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B는 유류분 계산시 A의 자녀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되지만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도록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장남인 B가 상속을 포기해도 유류분 계산시 A의 자녀 수에서 B가 제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ㄴ.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D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에 한해 유류분권을 인정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D가 고령으로 생활 위기에 직면해 있더라도 나폴레옹 민법전에 의하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ㄷ. '2006년 프랑스 민법전'에 의하면,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유분에는 변동이 없다.

2006년 프랑스 민법전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상속 포기가 있으면 자유분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차남인 C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유분에는 변동이 생깁니다.

ㄹ. 우리 현행 민법에 의하면, B와 C가 모두 유류분권자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유류분 비율은 동일하지 않다.

우리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권자가 된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 비율로 정한다. 법정 상속분은 직계비속들 사이에서는 균분이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계비속 간에 차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나오지 않았고,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호주 상속인만이 재산 상속 풍조가 만연한 탓에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장남인 B나 차남인 C가 모두 유류분권자라면 그 둘의 유류분 비율은 동일하지 않은 것이 아닌, 균분하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 해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식 부분에서 여기로 돌아와서 확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다면 헛갈릴 가능성도 줄고 오히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부분입니다.

- 독해 태도의 중요성

이 문제는 2006년 유류분 제도의 변경 부분을 읽을 때 유류분 제도에 대해 나폴레옹 시기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고려한다는 인식, 그리고 실제로 이를 구분하고 차이를 정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답률, 풀이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을, 독해 태도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평

1. 핵심을 잡고 범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독해 태도
2.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
3. 각 시기의 특징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리
4. 용어에 대한 민감함, 응당 중요하게 봐야 할 문장에 대한 인식

이 네 가지 독해 태도가 두드러진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문의 객관적인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저런 독해 태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스럽게 이뤄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체감 난도, 특히 문제를 풀 때 차이가 상당히 큰 지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문은 좀 쉬운데? 뭐야 가치 없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지문 난도에서는 본인이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 언어이해 [16~18] / 클러스터링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글의 핵심을 명확하게 밝히며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패턴’을 찾는 목적에 맞춰 글이 진행될 것임을 인식하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 코멘트

기술 제재에서 목적은 핵심입니다.

기계학습을 위한 입력 자료를 데이터 세트라고 하며, 이를(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입력 자료 =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를 통해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합니다. 즉 유용한 패턴을 찾는 목적을 위해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겠네요. 정의를 정확하게 잡았으면, 충분합니다.

데이터 세트의 각 행에는 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저장되며, 각 열에는 개체의 특성이 기록된다.

데이터 세트 행에는 구체적 정보, 열에는 특성이 기록됩니다. 가볍게 행과 열 정도는 구분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 코멘트

행은 가로이고, 열은 세로입니다.

개체의 특성은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성별’은 범주형이며, ‘체중’은 수치형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보이죠? 수치로 구분되는 것은 수치형, 수치로 구분되지 않는 특성은 범주형입니다. 이 정도 내용은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학습 기법의 하나인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개체들을 묶는 기법이다.

계속 글의 핵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목적)은 유용한 패턴입니다. 그러니 클러스터링이 데이터 특성에 따라 유사한 개체들을 묶는 것 = 유용한 패턴을 만드는 것 정도로 판단하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분할법과 계층법으로 나뉘는데, 이 둘은 모두 거리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클러스터링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분할법과 계층법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거리 개념에 기초합니다. 당연히 두 대상을 구분한다는 인식과 공통점은 잡고 갔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리 개념은 기하학적 거리이며, 두 개체 사이의 거리는 n 차원으로 표현된 공간에서 두 개체를 점으로 표시할 때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이다.

거리 개념이 기하학적 거리와 점 사이 직선거리라는 개념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해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리를 계산할 때 특성들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특성 값을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과목의 학점과 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묶을 경우 두 특성의 단위가 다르므로 두 특성 값을 모두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구체적 예시까지 활용하며 거리 계산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특성 단

위가 다를 때는 ‘정규화’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확보하고 갔으면 충분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다른 두 범주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그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니까요.

또한 범주형 특성에 거리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를 수치형 특성으로 변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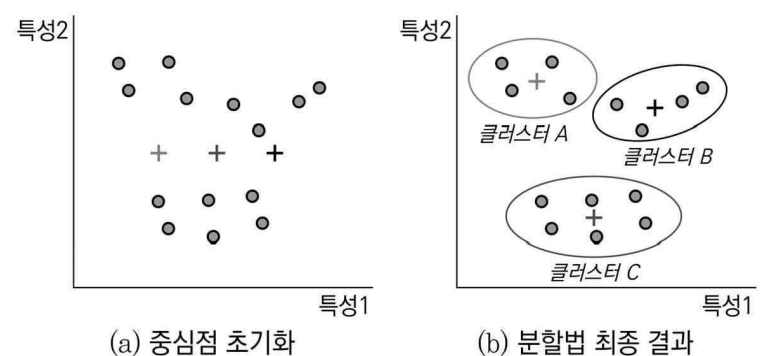
범주형의 개념을 파악했으면 당연한 말이 됩니다. 범주형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를 거리로 변환하려면 당연히 이를 수치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념을 확보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법은 전체 데이터 개체를 사전에 정한 개수의 클러스터로 구분하는 기법으로, 모든 개체는 생성된 클러스터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한다.

클러스터링은 분할법과 계층법으로 구분됩니다. 역시 분할법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시합니다. 꽤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전체 데이터 개체를 ‘사전에 정한 개수’로 하고, ‘모든 개체’가 ‘어느 하나’에는 속합니다. 선천, 후천 포인트와 단정적 포인트는 핵심적인 부분이니 분할법이 미리 정해진 클러스터와 모든 개체가 어느 하나에는 포함된다는 사실은 필히 확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tip - 대립쌍
 선천 / 후천 = 사전에 정해짐 / 나중에 정해짐
 모든 개체 포함 / 모두 포함은 아님
 이 둘은 애초에 명확하게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입니다.
 실제로 대립쌍에 대한 이해는 지문 이해와 문제 풀이 시 굉장히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필히 민감한 반응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림 1>에서 (b)는 (a)에 제시된 개체들을 분할법을 통해 세 개의 클러스터로 묶은 예이다.



<그림 1> 분할법의 예

<그림 1>이 제시됩니다. 전체 데이터 개체가 사전에 정한 개수의 클러스터로 구분되고, 모든 개체는 사전에 생성된 클러스터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이렇게 구체적 예시는 앞선 개념을 당겨 읽으며 이해해야 합니다.

- 코멘트

그림이 제시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림이 제시되었으면 그림을 활용합니다.

분할법에서는 클러스터에 속한 개체들의 좌표 평균을 계산하여 클러스터 중심점을 구한다.

중심점을 구하는 방법이 개체들 좌표 평균입니다. 하나의 공식이 제시된 것으로 필히 <개체 좌표 평균 = 클러스터 중심점> 정도로 공식을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고전적인 분할법인 **K-민즈 클러스터링** (K-means clustering)에서는 거리 개념과 중심점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

은 과정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K-민즈 클러스터링은 분할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정한 개수의 클러스터로 모든 개체는 어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으면 베스트입니다. 최소한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1) 사전에 K개로 정한 클러스터 중심점을 임의의 위치에 배치하여 초기화한다.

사전 K개의 클러스터 중심점을 정한다는 건 계속 반복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임의로 배치시키네요. 임의 배치는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합시다.

- 코멘트

재진술 시 추가된 정보는 파악해야 합니다.

2) 각 개체에 대해 K개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한 후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해당 개체를 배정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거리를 계산하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 배치하겠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3) 클러스터 별로 그에 속한 개체들의 좌표 평균을 계산하여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다시 구한다.

4) 2)와 3)의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그리고 임의로 배치한 좌표 평균에서 다시 좌표를 구하고, 이게 변하지 않을 때까지 좌표를 계산합니다. 일련의 과정이 매우 친절하게 직접 끊어서 제시해줬으므로 큰 무리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코멘트

앞서 분할법의 개념, 거기서도 핵심적인 포인트만 잘 잡았어도 제시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념, 거기서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tip -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연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줬으면 그렇게 제시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를 위한 글인 지문의 특성상 그 이유는 이해와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분할법에서는 이와 같이 개체와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클러스터에 개체를 배정하므로 두 개체가 인접해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서로 다르다면 두 개체는 상이한 클러스터에 배정된다.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모든 개체는 생성된 클러스터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니 인접해 있어도 다른 중심점 '하나'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앞선 개념을 확보했다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최소한 여기서라도 '가까워도 다를 수 있구나' 정도의 인식은 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클러스터링 이 잘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하는 품질 지표가 필요하다.

결과를 평가하려면 당연히 품질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품질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겁니다. 명확하게 잡아봅시다.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경우 품질 지표는 개체와 그 개체가

해당하는 클러스터의 중심점 간 거리의 평균이다.

품질 지표에 대한 공식이 제시됩니다.

<품질 지표 = 개체, 개체 해당 클러스터 중심점 거리 평균>입니다. 공식이 제시되면 필히 정리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속편합니다.

- 코멘트

+ 공식이 제시되면 정리하고 가는 것이 속편합니다.

cf) 수능 20.11 BIS, 23.09 유류분

+ 여기서 공식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간 사람들 중 '품질 지표니까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 클러스터 개수가 감소하면 품질 지표값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오독하여 추론 문항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을 정리했다면, 하지 않을 오독이죠. 공식이 제시되면 그거 쓰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속 편하게 쓰고 갑시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좋은 결과를 찾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클러스터링이 항상 좋은 결과를 찾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클러스터링이 좋은 결과를 찾는 것은 단정적인 것이 아닌 개연적이라는 것을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단정적 / 개연적

경우에 따라 좋은 결과를 찾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 좋은 결과가 단정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필히 의미를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체 최적해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초기화를 시작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나온 결과 중에 좋은 해를 찾는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그죠? 100% 장담할 수 없으니 많이 해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납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한 가지 문제는 클러스터의 개수인 K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할법은 애초에 사전에 정한 개수의 클러스터로 진행됩니다. 그나마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해줬습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니 '문제의 원인 = 미리 클러스터 개수 정함' 정도로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합시다.

- 코멘트

문제 상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닌 문제에 대한 원인까지 파악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K가 커질수록 각 개체와 해당 중심점 간 거리의 평균은 감소한다.

당연히 클러스터 개수가 많아지면 분화되는 것이니 개체와 중심점 간 거리의 평균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관계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것이 베스트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K↑ - 거리 평균↓> 정도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코멘트

거리 평균은 무엇을 의미했죠? <품질 지표 = 개체, 개체 해당 클러스터 중심점 거리 평균>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연결지으며 독해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이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계나 공식은 아예 간단하게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개체를 클러스터로 구분할 경우 개체가 곧 중심점이므로 이들 사이의 거리의 평균값은 0으로 최소화되지만, 클러스터링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용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글의 핵심인 '유용한 패턴 찾기'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왜 모두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 결과가 아닌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상상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정보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핵심을 상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작은 수의 K 로 알고리즘을 시작하여 클러스터링 결과를 구한 다음 K 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유의미한 품질 향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K 를 점점 증가시키고 유의미한 품질 변화를 파악하겠죠? 앞서 제시된 과정을 파악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입니다.

한편, 계층법은 클러스터 개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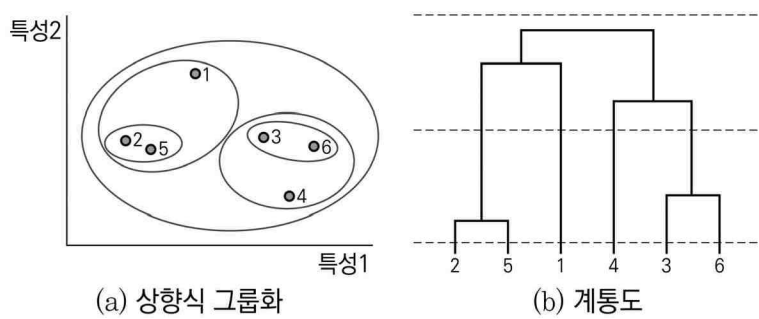
이제야 계층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분할법과의 차이를 제시합니다. 이 친구는 클러스터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확한 차이이므로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비교 ·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 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와 같이 지문에서 친절하게 둘을 구분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필히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분한 경우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림 2>와 같이 개체들을 거리가 가까운 것들부터 차근차근 집단으로 묶어서 모든 개체가 하나로 묶일 때까지 추상화 수준을 높여가는 상향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되어 계통도를 산출한다.



<그림 2> 계층법의 예

거리가 가까운 것부터 묶어서 하나로 묶일 때까지 추상화 수준을 높여 갑니다. 즉 하나로 묶이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추상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비례 관계를 정확하게 잡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은근한 비례 관계

대놓고 지문에서 수식이나, 과학적 요소만이 비례 관계로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장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근한 비례 관계 또한 선지로 정말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계층법은 개체들 간에 위계 관계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계통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수평선을 아래위로 이동해 가면서 클러스터링의 추상화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겠죠? 계통도 그림만 봐도 위계 관계에 효율적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수평선을 이동하며 추상도를 변경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앞서 비례 관계를 잡았다면, 올릴수록 추상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 ④

계층법은 클러스터 개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유사한 개체들을 묶는 기법입니다. 즉 한 개의 클러스터로 생성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② : 분할법 중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는 중심점을 임의의 위치에 배치합니다. 그러니 수행자가 정확한 계산을 통해 초기 중심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진술 시 추가된 정보는 파악합니다.
- ③ : 분할법은 한 개체가 어느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겁니다.
- ⑤ : 계층법의 계통도에서 수평선을 아래로 내릴 경우 추상화 수준은 낮아집니다. 은근하게 제시된 비례 관계 역시 파악해야 합니다.

- 코멘트

단순 일치 수준의 문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분된 대상에 대한 각각을 파악해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17.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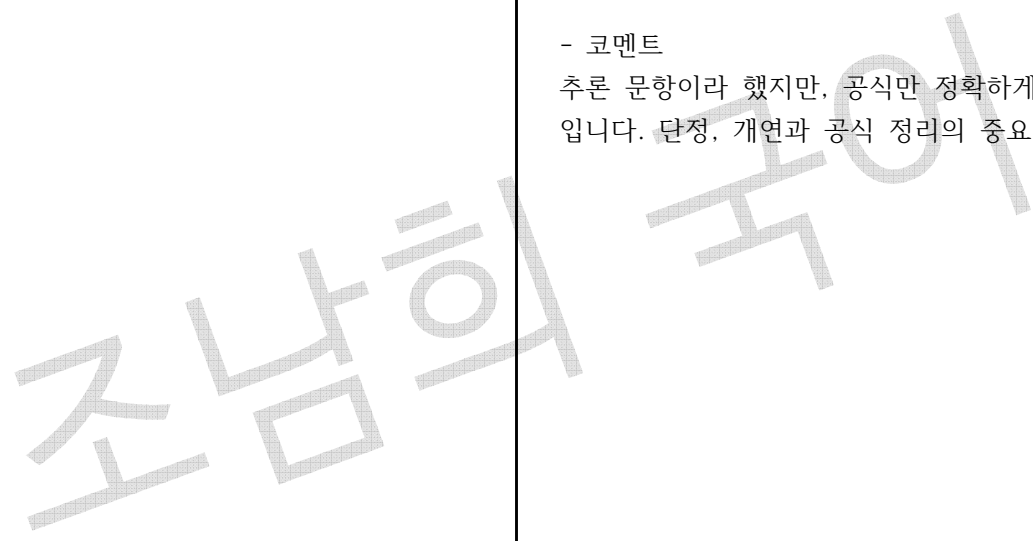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K가 정해졌을 때 개체와 해당 중심점 간 거리의 평균을 최소화하는 '전체 최적해'는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 번 수행한다 해서 전체 최적해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특성이 유사한 두 개체라도 가까운 중심점이 다르면 두 개체는 상이한 클러스터에 배정됩니다. 그러니 특성이 유사한 두 개체라도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② :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 중심점의 배치 위치에 따라 클러스터링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 품질 지표 값 = 개체, 개체 해당 클러스터 중심점 거리 평균입니다. 그리고 K가 커질수록 각 개체와 해당 중심점 간 거리의 평균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개수가 작아질수록 거리의 평균은 증가합니다. 즉 클러스터 개수를 감소시키면 클러스터링 결과의 품질 지표 값은 증가합니다. 공식은 정리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⑤ : 4) 2)와 3)의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최적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클러스터의 중심점은 고정된 점에 도달합니다.

- 코멘트

추론 문항이라 했지만, 공식만 정확하게 정리했다면, 일치 수준의 문항입니다. 단정, 개연과 공식 정리의 중요성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18. <보기>의 사례에 클러스터링을 적용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분석

시장 세분화를 위한 특성 유사 고객 묶음 = 클러스터링 진행
거주지, 성별, 나이, 소득수준, 라이프 스타일
⇒ 범주형 정보도 있고, 수치형 정보도 있음.

답 ②

개체들을 거리가 가까운 것들부터 차근차근 집단으로 묶어서 모든 개체가 하나로 묶일 때까지 추상화 수준을 높여가는 상향식 방법입니다. 즉 계통도로 표현하는 것을 세분화 과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층법은 개체들 간에 위계 관계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특성 정보들을 보면 이들이 위계 관계가 명확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고객 정보에서 성별은 지문에서 범주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모두 거리 개념에 기초합니다. 그러니 클러스터링을 적용하려면 유형 변환이 필요합니다.

③ : 시장 세분화는 결국 클러스터링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때 K-민즈 클러스터링은 사전에 K개로 클러스터 중심점을 설정해야 하기에 세분화할 시장의 개수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특성들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특성 값을 정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와 소득수준과 같이 단위가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⑤ : 모든 고객에 대한 1:1을 한다는 것은 모든 개체를 클러스터로 구분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들 사이의 거리의 평균값은 0입니다. 품질 지표 값 = 거리의 평균값이니, 품질 지표 값은 0이 됩니다.

- 코멘트

<보기>의 정보가 지문에 무엇과 대응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평

- 기술의 목적
- 선천/후천, 단정/개연
- 공식은 정리, 비례 관계, 연결
- 비교 · 대조

기술의 목적이 핵심임을 인지해 유용한 패턴을 찾는 것이 핵심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개념들을 구분하며 정리하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통해 납득하며 정보를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미시적으로는 선천/후천, 단정/개연, 공식 정리와 연결, 은근한 비례 관계와 같은 빈출 포인트를 애초에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지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림이 제시되면 활용합시다.

조남희의 국어